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3년 2월 1일(수)

※ 엠바고: 행사 종료 후 보도(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작성: 교육비서관실

배포: 대외협력비서관실

윤석열 대통령,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2.1. (수)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 등 핵심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관련해 다양한 경력과 학식을 겸비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3대 전략으로 ①5대 핵심 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②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③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첨단분야 중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5대 핵심분야(ABCDE : ^A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관련입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보도자료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여,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학사 자율화 등 규제혁신, 연구인력의 육성·유입 활성화, 기업주도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요건 개선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안전보고에 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①“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 ②“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중심 인재양성”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끝>